

피난 생활 보고 최종회 · 避難生活報告 最終回

헌당식을 마치며 (최종회)

헌당식을 마쳤다고 말하기보다는 눈깜작할 사이에 끝나버렸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헌당식 5 일 전인 월요일이었습니다. 이야말로 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헌당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돌연 유랑 생활이 시작된 저희들에게 어울리는 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00 명이 넘는 참석 신청이 와서 허둥지둥 신청을 마감하기는 했는데 이 인원으로 어떠한 헌당식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2 시간 예정이 한 시간 연장된 3 시간의 헌당식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이 2 년 동안에 있었기에 어쩔수 없었다고 자신을 다독거리거나 “이런 헌당식은 처음입니다”라고 말을 건네주시는 분들의 말씀에 자신을 납득시키려던 것들이 오히려 제 자신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헌당식 직후에 피로감이 몰려온 것은 아마도 이러한 함축된 내용과 제 자신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요? 어쨌든 성난 파도와도 같은 헌당식이었습니다. 다시한번 지금까지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식을 진행하는 동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그 동안 저희들을 배후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헌당식을 마치며 이 지진 재해 피난일기도 마치기로 했습니다. 3·11 직후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 블로그도 과연 언제까지가 되겠는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당식과 함께 이를 마침이 가장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 년간 그저 정신없이 쓰기에 몰두해온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저 투고해 보았던 제 글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읽어주신 것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글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그물처럼 이어지는 따뜻한 네트워크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후회가 있다면 헌당식 때 이제까지 묵묵히 계속해서 번역해 주신 분을 소개하는 것을 무심코 잊어버린 점입니다. 지진 재해 그 날로부터 정확히 2 년 2 개월 째를 맞는 5 월 11 일 토요일 오후 1 시반에 헌당식이 시작되어 2 시 46 분에 참석자 전원이 기립과 묵도를 바칠 때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국어번역을 계속해 주신 최(崔)선생님을 소개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과 독일어는 크라우드리아 자매 프랑스어는 다니엘선생님 영어는 요코야마(横山)선생님 중국어는 대만의 자매분

스페인어는 페루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번역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사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면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이 글은 언어와 민족의 벽을 넘어 구름과도 같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고 어느새 다국적 양상으로 변하여 인터넷 시대의 바람을 타고 와서는 저희들을 격려하며 신기한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지진재해의 여정이었던 만큼 더욱 고맙게 느꼈던 그물망과도 같은 인터넷의 따뜻한 감동을 기억합니다. 이 인터넷서널의 바람은 과연 바다 너머로 불어온 것인지요?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요?

지진 재해에 얽히면서도 이어진 제 피난일기는 마치 시를 연상케하는 별난 습성의 문장이었지만 인내와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명감에서였는지요? 이렇게 언어를 계속해서 변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번역에 종사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이 글을 뜨거운 마음으로 읽어주신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고독에 갇혀있었던 저희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지원이 되었는지요.

함께 울고 웃어주신 분들과 이제까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달려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고독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인지요.

저희들은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따뜻한 시선에 둘러싸여 지진 재해 로드를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외톨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드라마가 Climax 에 이르면서 당초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 2 년에 걸친 이상한 여행의 Casting director 는 역시 하나님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어느새 무대 위에 세워져 각각 배당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 이 역을 내려놓아도 되겠는지요?, 이 지진 재해 여정의 종착은 언제인지요? 설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한 번은 어떻게든 했습니다만 두번은 생각할 여유도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진 재해를 당하기 1 년 반 전에 “고생해서 세우는 교회건축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건축한 직후에 고향마저 잃고 지진 재해 2 년이 지나서 다시 교회를 서둘러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에? 두 번있는 일이라면 세 번도 있지않겠느냐고요?

설마 ... 이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음번이 있다면 아무쪼록 공평하게 윤번제로 해서 다른 장소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치 '복은 안으로 들어오고 도깨비는 밖으로 쫓아낸다' 뭐 그런 말인가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슬슬 내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도 그리고 하나님도 만약 제가 어딘가에 꼭 틀어박혔다고 해도, 혹시 뭔가를 생각하고 행방을 감추는 그런 일이 있다해도, 아무쪼록 저를 너그럽게 보시고 찾거나 염려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의 회화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 년 5 월 13 일 헌당식 이틀후 하마마쓰(浜松)행 신칸센에서)

*1 주일전에 쓴 이 원고를 나리타 공항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5 월 21 일 캐나다로 출발합니다.

*알림: 올해 이 블로그를 정리한 '유랑의 교회 최종판·새로운 여행길에 오름(가칭)'이 출판될 예정입니다. 또한 블로그에 저희 집 애견 파피의 피재 이야기 '파피가 본 동일본 대지진 재해(가칭)」라는 그림책도 자유국민사에서 출판될지 모르겠습니다.

헌당식은 홈페이지 Ustream 에서 볼 수 있습니다